

2018년 9월 4일(화)

### 549장 내 주여 뜻대로

-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 2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아니 기뻐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 4 우리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 할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9월 5일(수) 기도 담당 : 우도현 집사

##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549장 ..... 다 같 이

기 도 ..... 김두연 집사

성 경 봉 독 ..... 창세기 24:10~27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믿음의 선택의 결국』 .....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540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일	본 문	제 목
9월 4일(화)	창 24:10~27	믿음의 선택의 결국
9월 5일(수)	창 25:1~18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9월 6일(목)	창 25:19~34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9월 4일(화)

영원한 생명의 주님,

우리를 향한 미쁘신 뜻을 날마다 더하시며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인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깊은 경륜을 따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한걸음씩 인도해주시니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131년간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교회로 진실하게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 안에 내외적인 도전들이 커지며 교회의 사명이 흔들리는 이때에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거룩한 교회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여 더 많은 영혼을 감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온 성도가 한 마음 안에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셔서 공사 현장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설계대로 안전 가운데 건축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중에도 공사의 모든 일정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전 과정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평화와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의와 진리,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리를 섬기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오랜 대치와 고통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 열강들과 남북 지도자의 마음을 이끄셔서 평화의 날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흠어져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며, 날마다 복음으로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